

# 인지도 높은 중앙인사나 이해도 높은 지역인사나

## 통합 가시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초대 원장 누가 맡나

광주시가 전남발전연구원과의 연내 통합을 위해 3개월째 공석인 광주발전연구원장의 임명을 미루기로 하면서 민선 6기 초대 통합원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지도 등이 높은 중앙(수도권)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광주·전남지역 인물이 초대 통합 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벌써부터 장관 출신으로 호남 관련 조직을 이끌고 있는 A씨와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 국회의원 출신 B씨 등이 거론되는가 하면 광주·전남에서 지역발전 연구의 전문가로 꼽히는 C씨 등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신입 원장의 조건으로 중앙(수도권)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과 함께 특정인의 사전 접촉설 등도 떠돌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1일 광주발전연구원장 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장 후보로 응모한 2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재임용 절차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시 기획조정실장이 원장 임시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발전연구원장은 박승주 전 원장이 지난 6월 사퇴한 후 3개월째 공석이다.

광주시가 신입 원장 임명까지 미루는 등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통합원장으로 누가 선임될 지에 관심이 뜨겁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들어 상생발전을 위한 대통합의 원칙을 정하고, 첫 사업으로

## 광주발전연 원장 재임용 보류

## 별써 물밑 접촉설 특징인 거론

## “시도상생 위한 최적임자 물색중”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과 통합원장을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 통합원장의 활동 폭에 따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할 상생사업의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다.

신입 통합 원장 선임의 첫 단추는 중앙 인물이나, 지역 인물이나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인물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넓은 중앙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꼽는다.

반면 지역인물을 선호하는 측은 광주·전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내 전문가가 초대 통합원장을 맡아야만 상생 위한 정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내 통합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통합원장과 관련해 특정인이 거론된 적은 없다”면서도 “중앙과 지역 인물을 가리지 않고, 양 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최적 임자를 물색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해 1995년부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운영됐으나, 민선 4기때인 지난 2007년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분리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진상규명 사제 수도자 단식 기도회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사제 수도자 단식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발전연 통합해도 인력감축 없다”

### 이낙연지사, 직원들 불안감 일축

두 개로 나뉜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남지사가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사업소 출연기관 토론회를 하고 “두 기관이 통합한다고 해서 조직이 축소되거나 직원의 신분 및 생활에 제약이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며 “조직 자체가 더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통합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역방송에 출연, 분리 운영중인 두 발전연구원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도가 함께 가자면서 미래를 연구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합쳐야 커질 수 있고 연구의 내용과 질, 규모 등이 모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 발전연구원 통합 등 7대 공동정책 실천에 합의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분산건립 하겠다면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1곳으로 압축

# 광주 5개구 뜨거운 유치전

### 서구 “광천재개발구역 선정해 달라”

### 동·남구 “지역간 불균형 해소해야”

### 광산·북구 “지리적 접근성 고려를”

광주시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을 놓고 5개 구청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같은 경쟁은 민선 5기 때 선수촌을 애초 1곳에서 5개로 분산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민선 6기 들어 다시 1곳으로 압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광주 서구의회의는 25일 성명을 통해 “선수촌 아파트를 5개 지역에 분산 건설한다는 애초 안을 재검토하라는 ‘희망광주준비위원회’의 의견과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수촌 아파트 1곳을 지정·유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광주시장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구의회의는 특히 “반드시 서구 광천재개발지역을 선수촌 아파트 건립 부지로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동구와 남구도 선수촌 유치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과 동구의회의는 지난 달 공개적으로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 동구에 수영선수촌 선수촌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구의회의도 “광산구와 서구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구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와 광산구에 편중된 산업단지로서 지역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선수촌 유치를 희망했다.

광산구와 북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치러지는 남부대외의 지리적 근접성을 내세워 선수촌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와 북구는 민선 5기 때 선수촌 분산 건립을 발표하기 전부터 단일 선수촌 지역으로 유력하게 검토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운대 전 광주시장의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갑자기 5개 구 분산 건립을 발표하면서 5개 구청간 선수촌 유치전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강 전 시장은 당시 애초 1500세대 규모로 예상됐던 선수촌 아파트의 규모를 6000세대로 확대한 뒤 분산 건립을 약속했다. 강 전 시장은 챔피언십 메인 선수촌 1500세대는 대회 개최 장소인 광산구 남부대학교 인근에 건립하고, 수영 동호인 등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마스터대회 선수촌 4500세대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4개구에 분산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선수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선수촌이 분산 배치된 유례가 없는데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2013년 기준 사실상 포화상태인 107%로 분양 세대수 규모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5개 구 분산건립 계획 철회 입장과 함께 5개 구 중 메인 수영장이 있는 광산구 남부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1500세대 규모의 단일선수촌 건립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대한항공으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 Travel 터키일주

**NT 하나투어 터키 출발일 9/24(수), 10/15(수), 10/22(수), 11/3(월), 11/17(월)**

EMQF03 - KE  
편안한 터키 일주 9일    동급 호텔 숙박 + 중간항공 2회

**총 상품가격 3,475,500원 ~**  
원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 9/24(수), 10/15(수), 10/22(수), 11/3(월), 11/17(월)
- 이스탄불,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콘야, 아피온, 안탈리아, 파묵갈레, 에페소, 이즈미르
- ♥ 10명 이상 인솔자 동행, 중간항공 2회, 가이드 + 기사 경비 포함 100유로 상당 선택관광 포함 (안탈리아 유람선 & 벨리존스 공연), 온천호텔 숙박, 1일 생수 1병 제공, 수신기 제공, 터키 지도 제공
- ▶ 다양한 케밥체험 (행이리 케밥, 쉬쉬 케밥, 아다나 케밥), 와인이 곁들여진 양막비 특식, 업그레이드 한식 제공

EMQF03 - KEX  
알찬 일정 터키 일주 9일    업그레이드 호텔 숙박

**총 상품가격 2,574,700원 ~**  
원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90유로

- 9/24(수), 10/15(수), 10/22(수), 11/3(월), 11/17(월)
- 이스탄불, 앙카라,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묵갈레, 에페소, 아이발릭
- ♥ 10명 이상 인솔자 동행, 대형버스로 이동
- ▶ 다양한 케밥체험 (행이리 케밥, 쉬쉬 케밥, 아다나 케밥), 고풍한 케밥 특식

---

AAQF71 - KE  
**태국/미얀마/라오스 5일**    골든트라이앵글 3개국 + 라오스 1박

**총 상품가격 1,010,800원 ~**    원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 9/24(수), 10/19(일)    □ 치앙마이, 라오스, 미얀마
- ♥ 가이드 + 기사 경비 포함, 미얀마 도착비자 포함, 라오스 맥주 맛보기, 흥레우 탐승 체험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지유대비용,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인정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장포 및 홈페이지 www.j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관광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장포 및 홈페이지 www.j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인] 장애인 여행객이 참가하는 경우 여행의 안전 등 외부 요인입니다. ■ 관광사입장 동행료: 200000~100000 (중도취항 시 현지 동호회 인사동 41 여우루에 방문 여객사입장) ■ 31.0.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포함 이상 2인 1실 객실. 항공버스(세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2123/ARS 안내번호 0번 ■ 평일 보충보통 2명 1천만원 가량